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안

황 길 식
명소IMC 소장



1. 마을 가꾸기 사업에 학습이 왜 필요한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첫 단계는 마을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마을을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문제점이 많아 고쳤으면 하는 곳, 복원하고 싶은 곳 등 마을 환경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마을 가꾸기 학습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마을만이 가진 생활 풍습이나 놀이,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마을 가꾸기 학습의 예라 할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마을의 전반적인 가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 가꾸기 학습이다. 그렇다면 마을 가꾸기 학습이 왜 필요한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각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들 서로가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마을 가꾸기 학습 활동이다. 따라서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소중히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동안은 모두 함께 서로 배워나가는 시기이자 마을구성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구성원끼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이나 이를 담당하는 자문가(컨설턴트)가 구성원의 관심분야, 문제의식, 마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런 주제로 학습(교육)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해 보는 것이 현실

적인 방법이다.

2. 마을 가꾸기 학습의 유형

마을 가꾸기의 학습은 절대원칙이 없다. 이른바 유연성을 중요시 한 현실적인 학습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가꾸기 학습에 유효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강사를 불러 학습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능하면 주민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쓰는 것도 좋고,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문가에게 강의를 부탁한다면 이후 마을 가꾸기에 있어 든든한 후원자(자문위원)가 되어 줄 수도 있다.

가. 성공사례의 견학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을 가꾸기의 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잘 이해된다.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상대 마을 협의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견학을 실시할 때에는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조정할 것, 마을 방문목적을 사전에 연락할 것, 또한 방문 당시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그 후의 마을 가꾸기의 경과를 보고하는 일 등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나. 우리 마을에 대한 진단(조사)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가꾸기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등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을을 진단을 해보면 마을 가꾸기에 대한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진단은 마을 가꾸기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현상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자원 현황과 매력, 배후시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특성에 대해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른바 마을 가꾸기를 위한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하는 것이다.

다. 실제 체험에 의한 학습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도농 교류 이벤트를 통해 우리 마을 진단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조사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훌륭한 학습방법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마을에 도시민을 초청해 봄으로써 우리 마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도시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가꾸기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라. 연구 발표회(워크숍)

일본의 마을 가꾸기에서는 참가자들이 팀 작업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연구 발표회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 발표회는 그 주제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다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마을 가꾸기 협의회 내부에서 마을의 진단지도 만들거나 마을의 공공시설계획 만들기를 연구 발표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참가자들이 생기 있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 발표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조언하고 자문을 줄 수 있는 담당자(컨설턴트)가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 발표회를 진행할 때에는 정리한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목적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정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나면 각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행동전략이 필요해진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전수조사(면접, 설문조사 등)를 통해 마을 가꾸기 전체 또는 사업 부문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재를 보유한 마을에서는 그 인재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 가꾸기에서 주민교육부문은 주민조직의 구성과 같이 다뤄져야 하는데,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 또는 조직은 마을 가꾸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주민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주민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가. 1단계 - 마을 환경 및 주민 특성의 이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마을 가꾸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유산과 주민들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등을 파악하게 된다. 마을 환경 및 교육 대상자로서의 주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은 주민교육을 기획하기 위한 첫 단계로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든지 간에 「왜 그 교육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현재 마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시되는 것인지 애매해지고, 자칫 일정 기간 안에 사업비 중 주민교육부문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때 우기 식이나 사업추진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빠지기 쉽다.

주민들이 주체가 된 마을 가꾸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들이 어떠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에 가장 알맞은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을 가꾸기 과정에서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비록 아주 짧은 일정의 현장견학일지라도 왜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실시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지를 항상 스스로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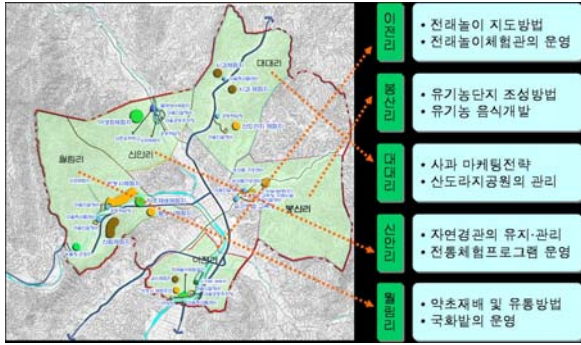


그림 1 마을별 사업내용에 따른 교육내용의 선별(예)

나. 2단계 - 마을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교육내용의 선별

마을 가꾸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별 특성에 맞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주민교육들은 대부분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공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불분명하게 다루고 있어 마을별 사업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과 관련한 상위 정책 자료에서부터 마을개발계획서까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갖춰야할 역량을 구체화시킬 확실한 계획을 갖추도록 한다.

다. 3단계 - 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 파악

마을 환경 분석이나 마을별 사업 검토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민요구조사 결과, 그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수요)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의 실시시기 또는 실시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며, 심지어는 그 과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단위 사업의 추진여부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진단은 주민 참여형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으로 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성인학습자로서의 마을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을 선정하여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요구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교육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법, 면접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 질문지법이나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현재 수준 및 교육에의 관심도를 파악하게 된



마을회의



개별 인터뷰
사진 1 주민 의견수렴



담당공무원 인터뷰



담당공무원 연구 발표회
사진 2 행정 의견수렴

다. 또한 전문가 및 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선정한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라. 4단계 - 주민교육 목표 설정 및 교육계획서의 작성

위와 같이 체계화된 과정을 거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과 주민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전체 내용을 구성한다. 이 중 교육내용의 중요성(긴급도, 흥미도, 사업 기여도)이나 당해 년도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단위 교육과정별로 언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때 처음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사업시설 부문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나 사업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그 실천능력까지 키워졌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시설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면 오히려 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주민교육에 있어서는 마을계획 수립 시 세운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담당 자문가의 노력이 중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우선 실시될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 보통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① 사업에의 참여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소득 사업 위주로 성공률이 높은 사업부터 실시)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실시한다.
- ② 개별농가에 이익이 돌아가기 보다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부터 주민교육을 실시한다.
- ③ 마을 내에 교육을 지도해나갈 인재가 있는 과정부터 실시한다.

연간 교육계획서와 일정표의 검토와 작성이 끝났으면 앞서 설정한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단위 교육과정별 교육일정표와 구체적인 지도안(교육내용, 교수기법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교육이 무슨 목적, 내용, 방법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가를 밝혀 적도록 한다.



주민교육계획 소개



세부교육과정 소개

사진 3 주민교육 설명회

마. 5단계 - 주민교육 설명회 개최 및 교육생 모집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여 진행을 통해 사업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추구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신청을 유도함으로써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다. 예를 들어 약초를 주제로 한 마을계획이 수립된 마을의 경우 약초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가(10여 가구 안팎)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생을 선발하고 난 후에는 효과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특히 접근성과 시설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준비사항 중의 하나이다. 앞서 이야기한 약초 전문가 과정의 경우에는 이론이나 시범을 보일 때는 마을 인근 약초연구소를 이용하고, 소모임 토의활동을 추진할 때는 마을회관을 그리고 현장실습을 진행할 때는 마을의 약초재배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주민들의 사업추진력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를 고려한 과점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협

조를 얻어 주민교육 담당자가 직접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가. 자연스러운 교육 분위기의 연출

참여자 중심의 주민교육에 있어 교육담당자는 학습 보조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독자적인 과제물을 작성하고 팀별로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횡수별 교육내용 및 참가방법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진행 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진행자 자신부터 유머를 섞어 본인 소개를 하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딱딱해지기 쉬운 교육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좋은 방법이다. 교육시 주민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다과를 준비하는 것도 교육에의 참여를 높이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요인이다.



시청각 자료의 활용



질문법을 통한 참가 유도

사진 5 강의식 교육의 전개

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의식 교육의 전개

다양한 교육방법 중 주민자치대학이나 시민강좌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강의법은 강사가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직접 언어로서 전달하는 형태로서 강사가 주도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교육방법을 말한다. 강의식 교육의 경우 자칫 하면 이론이나 지식의 단순한 전달에 그치게 되므로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거나 질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결속력을 다져주는 팀별 활동의 활용

팀별 활동은 소집단의 구성을 통해 교육내용을 전개하는 것으로 강의법과 같은 주입식 지식전달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또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교육에의 몰입도가



자기소개하기



레크리에이션

사진 4 자연스러운 교육 분위기 연출



팀별 활동모습



특산품의 차별화 성공사례 견학



팀별 활동에 대한 포상
사진 6 팀별 활동



마을 만들기 해외 선진지 견학
사진 7 견학프로그램의 운영

높아지고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팀 활동을 통해 마을 가꾸기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발굴되기도 한다.

라.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마을 가꾸기 성공사례를 우리 마을에도 응용 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도 강의와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전 답사 및 자료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편집하여 견학을 가기 전 '사전설명' 시간에 보여줌으로써 견학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도록 한다. 또한 견학 중에서는 마을이 장이나 부녀회장, 사무장 등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학과정은 주민들이 선진사례를 통해 직접 깨달음을 얻게 함으로써 교육에의 참여도를 높이는 입문역할을 하며, 과정이 절반쯤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적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농 교류 등의 실습을 진행하는 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마. 주민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의 실시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애정과 서비스 정신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별 학습상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면담 및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보다 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주민교육은 각 마을의 현장에서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모임(커뮤니티)을 개설하여 교육담당자(또는 강사)와 교육을 받고 있는 주민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교육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게 하는 것도 주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5. 마을 가꾸기는 사람 가꾸기

이상으로 마을 가꾸기 학습의 기획과정과 운영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중요한 것은 마을 가꾸기 학습은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마을의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마을 가꾸기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하

기 위한 학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실천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실천해나가는 마을을 견학한 뒤 ‘우리 마을도 빨리, 서둘러 실천하자’라며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업운영주체인 농촌주민과 지원주체인 행정기관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운영속도가 아니라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마을 가꾸기 학습은 이른바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공여부는 얼마만큼 학습을 충실하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훌륭한 학습경험은 주민들에게 사업성공에 대한 한시적인 기대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능력까지 함양시켜줄 수 있어

야 한다. 훌륭한 계획도, 보기 좋은 마을환경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실천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람 가꾸기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한마디로 ‘풍요로움’을 목표로 한다.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학습해 나가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한다 해도, 그 풍요로움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어 다소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매우 긍정적인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마을이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마을 가꾸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을 가꾸기는 사람 가꾸기이며, 사람 가꾸기가 바로 마을 가꾸기이다. 왜냐하면 마을 가꾸기의 주역은 ‘사람’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감성이 마을 가꾸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